

당의 사상을 스스로 받아들이도록 하는것은 사상교양사업의 중요한 문제

전 정 식

군중을 한사람이라도 더 쟁취하여 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묶어세우는것은 강성국가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이 주인이 되어 해나가야 할 사업이다. 강성국가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는 근본열쇠는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다. 천만군민의 정신력, 사상이 발동될 때 강성국가건설에서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

군중을 동원시키는 사업은 그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통하여 진행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세포들은 군중에게 당의 사상을 주입할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당의 사상을 받아들이도록 품을 들여 인내성있게 교양해야 합니다.》

군중을 당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 사상교양사업에서는 그들에게 당의 사상을 주입시킬것이 아니라 그들스스로가 당의 사상을 받아들이도록 하는것을 중요한 문제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사상교양사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을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한 혁명가들로 키우며 그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중이 당의 사상을 스스로 받아들이도록 하는것이 사상교양사업의 중요한 문제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사람들에게 당의 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하도록 하는 사업이라는것과 관련된다.

군중을 당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상교양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해나가자면 단순히 그들에게 당의 사상에 대하여 알려주는것으로 그치거나 그것을 그들에게 주입시킬것이 아니라 그들스스로가 당의 사상에 대하여 공감하고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이 신념으로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하는가 하는것은 철저히 그들자신에게 달려있다. 다시말하여 사람들은 무엇을 생활의 목적으로 내세우며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는데 따라 자기가 지닐 사상을 선택하고 받아들이 신념으로 간직하게 된다.

신념은 사상 그자체가 아니라 해당 사상의 진리성과 정당성에 대한 믿음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받아들인 사상이 리치적으로 옳고 자기 운명의 길을 밝혀주는 가장 정당한것이라는데 대한 확신을 가질 때 그것을 신념으로 간직하게 된다.

사상에 대한 인식과정은 신념형성과정의 첫공정으로서 사상을 신념으로 만드는 전제를 마련하는 과정이다. 사상의 진리성과 정당성, 그 필승불패성에 대한 원리적인 인식은 신념형성의 출발적전제이다.

사람들은 사상교양사업을 통하여 당의 사상의 본질과 내용을 원리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사상을 인식한다는것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요구와 리해관계에 비추어 사상을 리해한다는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상요구와 리해관계에 가장 직접적으로, 절실하게 부합되는 사상을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사람들은 생활과정에 자기의 요구에 맞는것을 자기의 사상으로 선택하여 신념으로 받아들인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생활적요구와 지향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는데 부

합되는 사상을 자기 생활의 지침으로 받아들인다.

사상은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한 의식으로서 객관세계의 리치를 밝힌 지식과는 달리 철저히 사람의 요구와 관련되어있다. 사람은 다양한 사물현상들에 대하여 일정한 태도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 기초에 다른아닌 사람의 요구가 놓여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일부 사람들이 자기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릇된 요구를 가지게 되는 것은 결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요구를 가지고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생활과정에 받게 되는 이러저러한 사상적영향과 관련된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사회주의사상, 집단주의사상이 지배하고있지만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잔재들도 남아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으로 부식된 썩어빠진 반동사상, 반동문화도 사람들에게 그릇된 사상적영향을 주고있다. 이러한 사정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올바른 원칙을 가지고 진공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을 요구하고있다.

사람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잘하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그들이 낡은 사상의 영향을 받고 그에 물젖어 사회주의적요구에 맞지 않게 생활하게 되며 결국 자기에게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어주는 수령의 은덕을 잊고 사는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될수 있다.

가장 혁명적이며 운명개척의 참다운 길을 밝혀주는 당의 사상, 사회주의사상을 지니도록 하고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이도록 하는 사상교양사업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없이 귀중하고 고마운것으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성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어려서부터 집단을 귀중히 여기고 존엄있게 대하며 집단의 요구를 실현하는것을 자기의 생활적요구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당의 사상이 자기자신을 위한 가장 올바른 사상이라고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자기의 사상으로, 신념으로 간직하게 된다.

사람의 행동은 강요할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이나 사상은 강요나 주입으로 움직일수 없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당의 사상을 지니라고 한다고 하여 그것이 해결되는것이 아니며 사상교양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군중에게 당의 사상을 내리먹인다고 하여 해결되는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사상을 스스로 선택하고 받아들인다는 특성은 당의 사상을 혁명적 신념으로 간직하도록 하는 사상교양사업에서 당의 사상을 주입할것이 아니라 그들스스로가 당의 사상에 대하여 원리적으로 인식하고 공감하고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군중이 당의 사상을 스스로 받아들이도록 하는것이 사상교양사업의 중요한 문제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군중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이라는것과 관련된다.

사상교양사업은 사람들을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과 함께 그들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자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은 당에 대한 충정의 가장 뚜렷한 표시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사람들에게서 신념형성은 일정한 사상에 깊이 공감하고 그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려는 지향을 가지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사상에 대한 공감은 인식한 사상에 기초하여 사람들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심리에 강한 작용을 하면서 심금을 울리고 큰 감흥을 일으켜 내적인 심리적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사상에 깊이 공감한다는것은 그 사상의 정당성에 매혹되고 그것을 따르려는 강한 정신상태에 놓이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상은 정서적체험을 통하여 감정정서적으로 공감될 때 신념으로 된다. 공감은 그 사상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도록 하게 하는 강렬한 지향을 불러일으킨다. 사람들은 공감과정에 자기가 파악한 사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며 그 사상을 옹호관철하려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게 된다.

사상교양사업을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에 공감하고 스스로 받아들여진 사상만이 신념화된 사상이며 그러한 사상만이 행동의 지침으로 된다.

말로는 당에 충실하고 당의 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하였다고 하여도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지 않으며 당에서 관심하고 걱정하는 문제를 풀기 위한 투쟁에 자기의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당의 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비록 말은 적게 하여도 당에서 걱정하고 의도하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사색하며 몸을 내대는 사람이 진짜로 당의 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한 사람이다.

오늘 인민군대에서는 당이 결심만 하면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정해진 시간에, 당이 요구하는 높이에서 무조건 수행해나가고있다. 인민군군인들의 이러한 혁명적군인정신, 군인본때는 바로 우리 당이 바라는 일은 모두 우리 인민을 위한, 자신들을 위한 일이라는 투철한 신념에 기초하고있다.

사람들의 활동에서 적극성은 자기 일에 대한 확고한 지침이 마련되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확신에 기초하고있다.

당의 사상과 로선이 아무리 정확하고 정당한것이라고 하여도 대중이 그에 대하여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의 심금을 울리지 못한다면 대중을 당의 사상관철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없다. 대중에게 당의 사상관철전으로 펼쳐나서라고 웨칠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당의 사상이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 로선과 정책이며 당정책이 관철되는 과정에 인민의 리익이 실현되고 인민을 위한 보다 훌륭한 생활이 마련된다는것을 사상교양사업을 통하여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스스로가 당의 사상이 인민적인것이라는것을 알고 그에 공감되도록 하여야 한다. 스스로 알고 공감된 사상은 사람들에게 신념으로 간직되며 자기 생활의 확고한 지침으로 되어 언제 어디서나 오직 당의 사상대로만 사고하고 실천하도록 추동한다.

사람은 모든것을 자기 생활의 요구에 비추어 사물현상을 대하고 그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게 된다.

사람들이 자기의 요구실현이 비록 난관과 시련을 헤쳐야 하는 어려운 길이라는것을 알면서도 곳곳이 헤쳐나가는 강毅한 의지를 발휘하는것도 결국 그 길에서만 자기의 요구를 훌륭히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였기때문이며 그 사상에 공감하고 매혹되어 자기 생활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간직하였기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적요구를 가장 훌륭히 실현할수 있는 옳바른 길을 밝혀주는 당의 사상을 지니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그들이 당의 사상의 정당성을 인식하게 된다면 그들스스로가 당의 사상을 자기의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그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시여 우리 인민을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우시려고 끊임없는 선군장정, 인민사랑의 길을 걷고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과 헌신은 인민들로 하여금 우리 당의 사상이 얼마나 인민적이고 혁명적인것인가를 깨닫도록 하며 당의 사상을 관철하는 길에 끝없는 충정을 다 바치도록 한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철저히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로선과 정책이기에 오늘 우리 인민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데 세상에 부럼없는 생활을 창조하는 가장 옳바른 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있다. 이러한 확신이 있기에 우리 인민들은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는 신념의 구호높이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우리는 당의 사상을 대중이 스스로 자기의 사상으로 받아들이도록 사상교양사업을 품을 들여 인내성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오직 당의 사상만을 알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신념의 강자, 결사관철의 투사로 자라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